

헤적프레스! 헛헛한 말과 얼굴

EXHIBITION

2021 / 02 / 14

ART IN CULTURE

박연주와 정희승의 협업 출판 프로젝트 / 안 소 연



헤적프레스 <헛수고> 포스터

허공에 던져진 물감이 글자에 부딪혀 잠시 파열하다 그대로 굳었다. 내뿜은 체액처럼, 하얗은 형태가 제 열은 채도와도 무방하게 진부한 읽기를 교란한다. 고딕의 엄격함은 애매하게 벌어진 글자 사이의 빈 공백 탓인가, 신비를 잃었다. 늘어난 테이프처럼 제 호흡을 망각한 어리석음의 통제 불가능을 명백히 보여준다. 소리, 분명 어디에도 음은 없었지만 가사 없이 부르는 노래처럼, 혹은 에르네스토와 아이들이 어머니의 "노래 속에 드문드문 흩어진" 노랫말을 듣는 것처럼¹⁾, 아주 낮은 윗조림이 내내 거기 있었다. 이 망가진 색과 글과 말과 모든 것의 침묵을 흐릿한 배경 삼아, 더욱 또렷해진 새의 머리.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온전함이 나태함을 뚫고 시선의 고리를 만든다. 사진이니까 가능한 허깨비같이 의문스러운 시점, 형태의 무게 중심처럼 둔갑시켜, 본 것에 대한 신뢰를 강요하거나 간혹 뒤흔다. 헤적프레스의 <헛수고>(2020. 12. 15~1. 10 팩토리2)는 정희승의 사진과 박연주의 타이포그래피가 하나씩 쌍을 이루어

표출했다.”고 보도했다.

부조리한 블랙 유머 같기도, 혼한 수법처럼 사회·정치 풍자의
뉘앙스가 배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대, 헤적프레스의
<헛수고>를 관통하는 두 작가의 태도가 공허하고 쓸모없는
행위와 체계를 다시 반복하며 지탱하고 있는 각자의 예술 노동과
이로부터 발생한 참을 수 없는 의혹,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사이를
왕복하지 않는가.

마침, 이 전시는 잠시 시기가 겹쳤던 정희승의 또 다른 전시에
출품된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추는 춤>(2020)과 희미한 대구를
이룬다. 새 머리 대신 예술가의 초상을 놓고 부조리한 텍스트 대신
부조리한 삶의 서사와 봉인된 말소리의 흔적을 나열해, 불가능과
불가결한 한계를 가로지르는 사이렌의 절정을 지연시키는 예술적
삶의 열망에 대한 순수한 의혹을 떠오르게 한다.

1) 마르그리트 뒤라스(Margueritte Duras)의 소설『여름비(La
Pluie D'été)』(Éditions P.O.L, 1990)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과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방인 어머니가 등장한다.